경북도, '민생안정' 중점 소비진작 등 4대 분야 지원 총력

中企·소상공인 경영자금 발행
관계 기관과 수출기업 지원사업
대중교통 확대로 소비 활성화 도모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는 올해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에 두고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년 도정 방향 설명을 통해 "새해에도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 진작, 수출 활성화, 대중교통 등 4대 분야에 2025년 1분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힘쓴다. KB금융그룹과 저출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을 육아하는 소상공인의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것은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신규 보증 1조원 이상 규모 확대, 부실 또는 부실 징후 소상공인의 금융컨설팅 전담팀 신설, 2025 APEC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주시에 있는 음식 숙박, 도소매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1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 마련 등 도와 관계기관이 빈틈없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진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를 끌어내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숙박과 관광 활성화까지 도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경북의 2025년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이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통상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경북도와 수출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져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세계 진출을 도울 수 있다. 경북은 대구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구경북지원단과의 협력을 토대로 환변동 보험료 지원, 주요 글로벌 행사, FTA 활용 및 관세 행정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연결 확대에 따른 소비 유인과 시장 규모의 증대를 위해 대중 교통지원 사업도 신속히 진행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와 환승 체계 강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통비 절감 효과에 더해 500만 시도민의 상호 이동으로 소비 활성화와 시장 규모 증대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의 경제 여건이 국내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내실을 다지는데 경북도와 관계기관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전남 무인도 '줄고', 유인도 '늘고'

전남 섬, 2165개… 국내 61.3%
2022년 말 비해 유인도 3개 늘어

국내 섬의 60%를 보유한 전남에서 무인도가 소폭 감소하고 유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전남의 섬(도서)은 2165개로, 국내 전체 3534개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유인도는 274개로 58%, 무인도는 1891개로 61%를 점유하고 있다. 2위 경남(552개)의 4배, 3위 충남(285개)의 8배고, 4위 인천(192개)보다 11배 많은 수치다.

전남 시·군별로는 신안이 유·무인도 모두 합쳐 859개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여수(353개), 완도(258개), 진도(253개), 고흥(230개) 순이고, 무인도만 놓고 보면 신안(782개), 여수(307개), 진도(210개), 고흥(207개), 완도(204개) 순이다.

2022년말에 비해 유인도는 3개 증가했다. 여수 수항도는 거주자가 없어 무인도로 관리됐으나 개발 대상 도서로 지정되면서 유인도로 재정비됐고, 신안 율도와 노대도는 인구 유입으로 유인도로 바뀌게 됐다.

국토 먼섬도 전국 43개 중 25개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다. 시·군별로 신안 11개, 진도 6개, 영광 4개, 여수 3개, 완도 1개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문도,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군 25개 최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이전 공공기관 상생·협력 논의

13개 공공기관, 기보 등과 간담회

부산시는 13일 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혁신도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을 비롯 부산혁신도시(동삼·문현·센텀혁신지구)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동삼·문현·센텀혁신지구가 함께 모여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혼란한 국정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부산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 금융, 영화·영상 등 부산의 핵심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삼혁신지구는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다진다.

문현혁신지구는 디지털 금융 혁신 등 국내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센텀혁신지구는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문화적 브랜드 강화와 함께 영화·영상·게임 등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해 명실상부 세계적인 영상콘텐츠 거점으로 성장했다.

동삼혁신지구에서는 작년 연말 글로벌 해양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해 지역이 가진 최대 강점인 해양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이 협력해 우수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외국인 방문객 100만명 돌파

지난 1년간 117만 9094명 찾아

경주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외국인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총 117만 9094명이 경주를 찾아 외국인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특화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 기간 경주를 찾은 외국인 중 중국 등 중화권 방문객이 41만 1986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면서 주요 방문국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경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더 늘어나게 될지 주목된다.

황리단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모습.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김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시책 추진

내수활성화 특별대책 등 운영

김해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1월 지역경제 활성화의 달 지정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앞당긴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시책으로 내수 활성화 특별대책 운영, Speed Up 2025 민생지원 사업 조기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물가안정 종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김해사랑 상품권을 7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현금 유동성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 통합쇼핑몰인 김해온몰, 공공배달앱 먹깨비, 우체국 쇼핑몰 김해시브랜드관에서 1월 집중 빅세일을 진행한다.

한 달 정도 앞당겨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원 증가된 6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상)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포항시는 핵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속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광양시

동계 전지훈련 96개팀 유치

광양시가 동계 전지훈련팀의 잇따른 방문으로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겨울철에도 낮 기온이 영상에 머무는 온화한 기후,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덕분에 지난해 말 육상, 축구, 탁구, 수영 등 5개 종목에 96개 팀이 광양시 방문을 확정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광양시는 지난해 대비 15%가 늘어난 규모인 100개 팀 1500여 명 유치를 목표로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18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해남군

올해 해남맛집 6개소 선정

해남군이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을 '해남맛집'으로 선정했다.

올해 해남맛집 선정 음식점은 6개소로, 도화지(해남읍), 대동명품한우(북평면), 돌고래식당(삼산면), 궁전회관(황산면), 대선정가든(송지면), 땅끝정인숙칼국수(현산면) 등이다.

해남맛집은 지난해 진미식당과 서성식당, 성내식당 3개소가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6개소가 선정돼 총 9개소로 늘어났다.

군은 해남의 맛집들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채널인 '미미(味美)원정대'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글래스돔과 경남지사 설립 '맞손'

경남도는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업체인 글래스돔과 경남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래스돔은 탄소 중립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으로, 영국 로이드인증원·법무법인 지평과 협업해 경남 제조기업이 수출 시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또, 같은 날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와 '경남 디지털기업 투자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